

영화로 감상하는 국내·외 무형문화

국립무형유산원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11~13일... '숨, 씬' 주제로 네이버TV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하는 '2020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IIFF)'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무관객 온라인 영화제로 진행된다.

올해 7회를 맞는 '2020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는 '숨, 씬'을 주제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무형유산만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현장감이 담긴 다채로운 작품들을 통해 마음의 휴식과 위안을 제공한다.

판소리 뮤지컬 영화 '소리꾼'을 시작으로 개막하는 이번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는 총 16개국, 26편의 영화들이 ▲헤리티지스트림 ▲이프포커스 ▲마스터즈아리랑 ▲이프단편 ▲이프VR ▲특별상영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관객들을 찾는다. 폐막작으로는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침묵:리스본의 소리'가 방영되며, 개막식은 11일 오후 8시, 폐막식은 13일 오후 5시에 네이버 TV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헤리티지스트림은 전 세계 다양한 무형유산을 다룬 영화를 선정하고 전문해설을 곁들여, 더욱 쉽고 재미있게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재즈 세계를 담은 다큐멘터리 '허비 행콕'

무한한 가능성' 상영 후 '스위스몽트뢰제즈 페스티벌의 기록유산과 음악리코딩'에 관한 해설영상, 폐막작인 '침묵:리스본의 소리' 상영 전에는 포르투갈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파두'에 관한 전문해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의 주제전인 이프포커스 부문은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인류 모두가 경험하는 현재를 바탕으로 '숨과 생명, 치유와 씬'을 바탕으로 한 영화를 상영한다.

특히 무형유산의 전승 현장을 촬영한 다큐멘터리인 '의사의 땅, 칼라와야의 비밀'은 안데스의 칼라와야 부족의 오랜 의학적 지식과 전승 체계를 바탕으로 오늘날 문명의 결과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하게 만든다. 안데스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전설을 다룬 '안데스의 노래'도 상영된다.

마스터즈아리랑 부문에서는 국내 필름 디지털 복원장 중 최하원 감독의 문예영화 '나무들 비탈에 서다', '죽 짓는 늙은이', '무녀도' 등 세 편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상영 후에는 오동진 평론가의 진행 아래 최하원 감독, 김종원 평론가가 함께하는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와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된다.



다큐멘터리 '의사의 땅, 칼라와야의 비밀' /국립무형유산원 제공

다. 이프 단편 부문에서는 국립무형유산원의 기획·제작 콘텐츠인 '씨름, 분단을 넘어 시계를 잇다'를 관람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전통악기 '가물란'과 전통춤을 다룬 '타리 발리', 베트남 타이족의 전통의식 '킨판텐 축제' 등을 담은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기록영상 신작 다큐멘터리도 선보인다.

무형유산과 문화를 소재로 한 한국 단편 영화 '운수 좋은 날', '소나기', '찹쌀꽃', '안녕'도 공개된다. 무형유산과 VR(가상현실)을 접목한 이프 VR 부문에서는 '맹인검객 삼학규', '붉은

바람' 등을 선보인다. EBS국제다큐영화제의 '다큐 속 무형 유산' 부문 중 '기생, 꽃의 고백', '아네르카, 생명의 숨결' 두 편도 특별 상영작으로 만날 수 있다.

한편,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2014년부터 매년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를 개최해 영상이라는 친근한 매체를 통해 우리 삶 곳곳에 녹아있는 무형유산을 친근하게 누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혁신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영화제로 전환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TV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오지현 기자



육상공에 속하는 연호궁(맨 안쪽 건물)과 이안청. /문화재청 제공

'칠공' 온라인으로 답사해볼까

문화재청, 해설 함께한 교육 영상 공개

문화재청이 공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가 칠공 특별답사 프로그램인 '표석을 따라 듣는 칠공이야기'를 온라인 교육 영상으로 제작, 공개했다.

이번 온라인 교육 영상은 코로나19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비대면으로 칠공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시키고자 제작했다.

동영상은 대표적 역사학자인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의 풍성한 설명을 바탕으로 칠공과 관련된 역사와 인물에 대한 해설을 들려줌으로써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칠공은 영조가 어머니 숙빈 최씨를 기리기 위해 지은 사당에서 출발했다. 1725년 당시 세웠을 때는

숙빈묘라고 했으나, 1753년에 육상궁으로 개칭했다. 고종 19년 화재로 소실됐다가 이듬해 중건했으며,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후궁들의 사당을 모으면서 칠공이 됐다.

이번 동영상은 문화재청 누리집과 공능유적본부 누리집, 경복궁관리소 누리집과 경복궁 트위터, 경복궁 인스타그램, 문화재청 공식 유튜브 채널, 한국문화재단 문화유산채널 유튜브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문화재청 공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응해 온라인 활용 콘텐츠를 꾸준히 확대 개발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한소리회,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12일 광주아트홀서 '코지 판 투테' 무관중 공연

한소리회가 오는 12일 오후 3시 광주아트홀에서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코지 판 투테(Cosi Fan Tutte)' 공연을 진행한다.

전국적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중견 성악가로 구성된 한소리회는 2000년 창단됐으며,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관객의 눈높이에 따라 맞춤형으로 공연함으로써 관객에게 다가서고 있다. 이번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코지판투테'는 해설을 통해 음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동시에 연기를 곁들여 관객들에게 폭 넓은 음악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오페라 갈라콘서트 '코지 판 투테'는 1789년에 모차르트가 작곡한 오페라다. '코지 판 투테(Cosi fan tutte)'는 '여자는 다

그래'라는 뜻으로, 남녀 간의 신뢰와 사랑의 문제 다루며 애정의 일면을 재치 있게 묘사한 작품이다.

나폴리의 청년장교 굴리엘모와 휘란도는 늙은 철학자 돈 알폰소와 여자의 정절을 대해 토론하게 되고, 여자의 변함없는 정절을 믿지 않는 돈 알폰소와 약혼녀들의 굳은 절개를 믿는 두 사람은 거액을 놓고 내기를 하게 된다.

돈 알폰소는 약혼녀들의 허녀 데스피나를 매수해 약혼자들이 군대에 갔다고 알고 있는 그녀들에게, 그녀들의 약혼자들을 터기인으로 변장시켜 소개시켜 준다. 처음에는 옹호하지 않았지만 돈 알폰소와 데스피나의 계략과 그녀들의 본능적인 호기심으로 점점 돈 많은 두 터기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

두 청년은 약혼녀들의 변심에 낙담하지만



지난 5월 23일 진행된 오페라 '코지 판 투테' 공연 모습. /한소리회 제공

늙은 철학자 돈 알폰소는 "세상의 모든 여자가 모두 다 똑같다"고 말하며, 여자들의 그러한 변심과 부도덕성마저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타이른다. 결국 두 사람은 약혼녀들을 용서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

총감독 및 연출은 박미애 광주대 교수가 맡았으며, 휘오르달리치 역에 소프라노 장희

정, 도라벨라 역에 소프라노 윤희정, 휘란도 역에 테너 장호영, 굴리엘모 역에 바리톤 김대수, 데스피나 역에 소프라노 한아름, 돈알폰소 역에 바리톤 권용만 등이 참여한다. 전문성악가인 박정희가 해설을 맡았으며, 피아노는 광주대 음악학과 장희경 교수가 연주한다. /오지현 기자

최윤규의 인물&상상

물어내기



창의성 물어내기: 키워주기

니들... 창의성 없이 살 수 있어?

규정에 없다... 고정관념... 비논리-비판... 관습-패러다임

기존의 사고방식을 고집하면 창의가 움츠러듭니다. 창의성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경쟁력입니다.

중흥 **정상에 우뚝 서다!**

열손가락 없는 장애를 딛고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산악인 김홍빈 대장,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 역경을 딛고 정상을 향한 끝없는 도전정신, 바로 중흥S-클래스의 정신입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개 봉우리 중 13번째 봉우리 가셔브롬 I (8068m) 정상에 오른 김홍빈 대장(2019. 7. 7)

S-CLASS
중흥S-클래스

www.s-class.co.kr

중흥S-클래스

목포하당지구 중흥S-클래스 센텀뷰 세종시 중흥S-클래스 센텀뷰 광교신도시 중흥S-클래스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 2017 매일경제 '살기좋은 아파트' 국무총리상 |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아파트 대상
- 2016 매일경제 '토목건축기술대상' 건축부문 주거용 최우수상 |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브랜드대상
- 2015 대한민국 고효율 친환경 주거 및 건축 기자재 대상 | 매일경제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상
- 2014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 |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아파트상